

『백년의 고독』: 신화에서 역사로, 역사에서 문학으로

김 용 호
서울대학교

Kim, Yong-Ho. (2002). *Cien años de soledad: De mito a historia, de historia a literatura*.
Revista Iberoamericana, 13, 27-46.

Hoy en día, los críticos coreanos tienen mucho interés en 『Cien años de soledad』 de Gabriel García Márquez. En los años noventa la mayoría de los escritores coreanos tratan de escribir obras fantásticas para huir de la realidad. Pero Hwang Suk-Young ha buscado una posibilidad nueva de la literatura fantástica en su obra 『El visitante』. En esta obra el escritor intenta curar el trauma de la guerra civil coreana, haciendo vivir los muertos con los vivos. Los críticos coreanos han aplaudido a esta obra porque ha buscado una nueva posibilidad en las obras realistas. Sin embargo, la convivencia de seres reales con seres irreales, es una de las características típicas de 『Cien años de soledad』.

『Cien años de soledad』 de Gabriel García Márquez, es la historia de la victoria y caída de la familia Buendía durante cien años, y está construida en tres grandes partes: la época de las mitologías, de las historias y de la literatura. En <la época de las mitologías>, que es una prehistoria de Macondo, el autor nos muestra tres códigos importantes para entender toda la historia de la obra. Primero, él nos narra el nacimiento y el miedo de la caída de la familia Buendía y de Macondo por el incesto; el segundo, su encuentro con la cultura extranjera que causará la caída de Macondo; y el último, la historia oral de Francisco. <La época de las historias> trata dos conflictos que ocurrieron realmente en la historia colombiana, en dos héroes. La historia del coronel Aureliano Buendía es la historia de la guerra de mil días y la de José Arcadio Segundo, de la huelga de los bananeros en Ciénaga. En Colombia, hay dos movimientos revolucionarios en cien años.

Los revolucionarios colombianos intentan construir la Utopía Liberal en la segunda parte del siglo XIX y la Utopía socialista en los comienzos del siglo XX. García Márquez nos narra el proceso y la caída de los dos movimientos reales en la obra. <La época de la literatura> tiene relación con la autobiografía de García Márquez. En esta época el autor nos narra dos trabajos principales, uno es el trabajo de Aureliano Babilonia y el segundo, el amor auténtico de los amantes. Aureliano Babilonia se metió en una habitación cerrada para resolver los manuscritos de Melquíades. Este acto nos muestra que Aureliano tiene carácter de los intelectos que tratan buscar las causas y respuestas de la realidad colombiana.

El mito del incesto es el código principal de 『Cien años de soledad』. Toda la historia de Macondo tiene relación con este mito. Todos los hombres tienen deseo del incesto; las mujeres, miedo de la caída por el incesto. Pero, hay que romper este miedo para construir la nueva sociedad. El mito del incesto se perfectó cuando regresó el nuevo representante Amaranta Ursula después de la muerte de Ursula. Aureliano y Amaranta Ursula son los seres más felices del mundo por el amor auténtico, y su cosecha, el último Aureliano que tiene cola de cerdo, no significa la caída fatal de Macondo sino el comienzo del nuevo mito y de la sociedad nueva.

I. 들어가며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동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 밀란 쿤데라

De cierta manera Colombia no existe sino como mito popular, como abstracción académica o en las asambleas de las organizaciones internacionales. - Raymond Williams¹⁾

1) WILLIAMS, Raymond L., *Novela y poder en Colombia 1844-1987*, Bogotá, Tercer Mundo, 1991, p.25.

『백년의 고독』이 출판된 지 올해로 35년이 흘렀으며, 국내에 소개된 지도 어언 25년이 흘렀다. 67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 소개되면서 이 책만큼 세계 문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도 드물 것이다. 풍성한 내용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는 지트릭의 말²⁾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계열의 작가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친 이 작품은, 출판 당시부터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선풍을 일으키며 국내 문단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 특히 김성동, 조성기 등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엔 황석영의 『손님』을 통해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90년대의 국내 문단이 80년대의 리얼리즘적 억압에서 벗어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며 현실도피 문학의 한 형태로서 환상문학을 표방하고 있을 때, 황석영은 그의 작품 『손님』을 통해 국내 문단에 리얼리즘과 환상문학의 병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인 내전과 분단 문제를 주술사를 등장시켜 화해시키는 황석영의 작품은 리얼리즘 문학 속에 환상이나 주술 등을 삽입시킴으로써 리얼리즘 문학의 확장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바로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에 내려지는 평가와 똑같은 것이다.

콜롬비아의 좌파 게릴라 단체인 M-19라는 단체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정부에 의해 수배를 받고 멕시코로 망명을 떠나 82년 노벨상을 수상할 때까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는 다른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처럼 중남미의 왜곡된 정치, 사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이다. 그의 이러한 정치적 신념은 노벨상 수상 연설문인 「라틴아메리카의 고독」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이 글을 통해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 및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으며, 특히 독립 후에는 미국이 후원하는 독재자들의 강압 통치를 겪어야만 하는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고독’을 온 세계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백년의 고독』이 그러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직설적으로 고발한 소설은 아니다. 50, 60년대에 유행하던 콜롬비아의 다

2) JITRIK, Noe. “La perifrástica productiva en *Cien Años de Soledad*”, Colombia, Rev. ECO, No.168, octubre de 1974, pp.578-601.

“La riqueza de *Cien años de soledad* ofrece innumerables perspectivas para el análisis; su multiplicidad de aspectos configuran un caso no muy frecuente en la literatura contemporánea.”(p.578)

른 리얼리즘 소설들에 비해 그의 소설은 직설적인 고발의 강도가 다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아픈 현실에 신화, 상징 등을 삽입하는 기법으로 콜롬비아를 벗어나 온 라틴아메리카에 일상화되어 있는 폭력의 역사를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폭력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어떻게 종결되는지 즉 폭력의 근원들을 이해하고자 했다”³⁾는 앙헬 라마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그렇지만 『백년의 고독』이 근본적으로 콜롬비아의 역사를 떠나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엔 콜롬비아의 비극적 역사들이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백년간에 걸친 부엔디아 가문의 승리와 좌절의 역사인 『백년의 고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구체적인 시간 개념이 결여된 제 1부 신화의 시대와 콜롬비아의 구체적 역사가 기술된 제 2부 역사의 시대, 그리고 그 역사적 시대를 주관적으로 재해석, 재발견해 내는 제 3부 문학의 시대로 구성되어 있다⁴⁾. 그 중에서도 특히 <천일전쟁>과 <바나나 농장의 파업> 사건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제 2부는 말 그대로 콜롬비아의 백년간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보수당이 창당됨으로써 양당제가 고착화되기 시작한 1849년부터 1948년 가이탄의 암살로 촉발된 <보고타 사태>까지 정확히 100년간의 역사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100년이라는 의미가 정확한 역사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신화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엔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1849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콜롬비아의 역사와 그 기간 중에 발생했던 두 번의 사회변혁운동의 중요성을 상기한다면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부엔디아 가문의 백년간의 고독이 철저히 콜롬비아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1.1. 신화의 시대

“많은 세월이 지난 뒤, 총살형 집행 대원들 앞에 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아버지에 이끌려 얼음 구경을 갔던 먼 옛날 오후를 떠올려야 했

3) RAMA, Ángel. *La narrativa de G. G. Márquez: Edificación de un arte nacional y popular*, Bogotá, Colcultura, 1991, p.84.

4) 『백년 동안의 고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은 앙헬 라마 등 많은 비평가들에게서 일반화된 해석방법이다.

다”⁵⁾라는 과거와 미래, 현재가 복합된 문장으로 모호하게 시작하는 『백년의 고독』의 첫 부분은 이 작품 이해의 열쇠들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시작은 종말에 내재되어 있고, 종말은 시작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순환적, 종말론적 시간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에 <신화의 시대>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시대>에 대한 전사로서 매우 중요하다. 총 20장으로 이루어진 소설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신화의 시대>는 신화적 공간인 마콘도의 탄생과 부엔디아 가문의 시작, 그리고 외래문물인 집시와의 만남 등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시간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성이 결여된 신화적 원형을 창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작중인물의 이름까지도 신화적 원형을 의식하며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⁶⁾.

<신화의 시대>에는 마콘도에 대한 역사 서술방법과 관련된 세 가지의 중요한 상징코드가 등장한다. 첫째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술라라는 근친간의 결합으로 인한 부엔디아 가문의 형성과 그로 인한 몰락에 대한 암시, 그리고 마콘도의 건설을 들 수 있다. 이미 조상들에 의해 한번 저질러졌던 ‘원죄’와도 같은 근친상간의 죄악은 그로 인해 ‘돼지꼬리 달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멸망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다. 이러한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신화는 세계의 여러 신화들 속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신화로 특히 인간의 숙명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의 ‘오이디푸스 신화’는 가장 유명하다. 물론 성경 속에서도 아담과 이브의 탄생 또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 탄생한 문명들 속에서 근친상간의 사례들이 보이지만, 부엔디아 가문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숙명과 관련지어 볼 때 오이디푸스 신화와의 관련성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마치 오이디푸스에게 주어졌던 가혹한 신탁과 운명이 그의 모든 것을 망쳐놓고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게 만들었듯이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근친간에 피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공포 때문에 고독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숙명을 맛보며, 끝내는 근

5) 가르시아 마르케스, 가브리엘, 『백년의 고독』, 조구호 역, 서울, 민음사, 2000, p.11. (본 논문에 사용된 텍스트는 조구호 씨 번역본으로 앞으로는 괄호 안에 해당 페이지만 기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6) 신화시대의 주요인물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이름은 고대 그리스의 ‘아카디아’, 즉 낙원을 상징하며 작명한 것이다.

친간의 결합으로 인해 멸망을 맞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마콘도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서구신화와의 연관관계는 두드러져 보인다. 근친간의 결합과 친구의 살해 그리고 마을을 떠나는 부엔디아와 우르술라의 모습은 성서 속의 여러 인물들을 패러디한 것이며⁷⁾, 이렇게 건설된 마콘도의 모습은 마을이면서도 소우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형적인 신화적 공간인 것이다.

두 번째 코드는 마콘도와 외부문명의 만남을 들 수 있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늘 새들이 지저귀는 행복한 영생의 마을이었던 마콘도는(23) 점차 현대문명과 그 제도의 침투를 받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는다. 조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국가의 공무원인 조정관이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부임하면서 마콘도의 몰락은 시작된다. 정당과 선거의 도입으로 내전이 발생하고, 미국인들이 건설한 바나나 농장은 대학살을 일으킨다. 이러한 외부문명의 도입과 제국주의의 침탈이 마콘도를 서서히 멸망시켜 나가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 4장에서 16장까지의 중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미 <신화의 시대>에서 이러한 몰락에 대한 암시들이 등장한다. 마콘도에 처음 등장한 외부문명은 벨키아데스와 집시들이 소개한 과학문명이었다. 그들은 자석, 망원경, 돋보기, 얼음덩어리들을 마콘도에 소개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문명은 마콘도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을 타락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집시들의 방문 이전엔 가장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남자였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23)”의 타락은 마콘도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시이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그런 공동체적인 술선수범 정신은 자석들에 관한 열병, 천문학적 계산, 물질의 변이에 대한 동경, 세상의 경이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이내 사그라들어 버렸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적극적이고 대담하고 깔끔했던 사람에서 아무거나 주워잡고, 수

7) 조상들의 땅이요 근친상간의 행위가 이루어지던 곳(리오아차)을 떠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자손을 생산하는 행위는 성서의 창세 신화를 패러디한 것이다. 낙원을 떠나는 모티브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원죄(선악과)를 지은 뒤나 형제를 살해한 뒤 그들은 공히 낙원에서 추방되어 새로운 땅을 건설하였다. 또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건설하는 것으로 모세 5경이 끝남을 상기할 때, 리오아차를 떠나 마콘도를 건설하는 행위는 모세 5경의 완전한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염은 덤수룩하게 자라 우르술라가 부엌칼로 진땀을 빼며 다듬어주어야 했던, 건달 모습을 한 사내로 변해 버렸다.(24)

진보된 문명의 전파자였던 멜키아데스와는 달리, 뒤에 도착한 집시들은 단순히 “여흥을 전파하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54)”에 그친다. 진보된 문명을 받아들여 황금을 찾고 전쟁무기를 개발하려고 삶의 기반인 당나귀와 염소를 주었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이제 유희를 위해 화폐를 지불한다. 외래문물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시대에 도입된 마지막 외래문물은 불면증이다. 구아히라 출신 원주민 비시따시온과 레베카가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콘도는 불면증이라는 전염병에 휩쓸리며 이로 인해 과거의 모든 기억을 상실하고 문자시대, 역사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외에도 우르술라가 발견한 길을 통해 들어온 외부문물 등 외부와 접촉된 모든 것이 원시적인 마콘도를 점차 근대화, 도시화시켜 먼 미래에는 “마콘도가 부엔디아 가문의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유리로 지은 거대한 도시가 될 것(87)”이라는 멜키아데스의 예언에 이르게 된다. “이 질병이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피할 수 없지요(73)”라는 비시따시온의 숙명적 절규에서 드러나는 외래문명의 폐해는 다음 역사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그렇기에 우르술라는 멜키아데스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에게서 “악마의 냄새(19)”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외래문물이 가져올 폐해를 이성이나 합리적 추론 이전에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세 번째 코드는 프란시스코에 의한 구전설화 이야기이다. 구전설화는 역사시대 이전의 민중들이 “바깥세상에서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83)” 유일한 수단이다. 온 세상을 유랑하며 노래하는 유랑시인들을 통해 그들은 먼 곳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유추하며, 심지어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83)”까지 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전설화는 공식적인 역사는 아니다. 권력을 가진 역사가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재단되지 않은 순수한 민중들의 삶의 흔적이요 기록인 것이다. 후일 바나나 농장에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공식역사는 이를 부인하고 왜곡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구전설화를 통해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렇듯 구전설화는 공식역사가 왜곡하고 감추는 민중들의 수난의 역사를 복원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작품 속의 많은 사건들은 서구의 텍스트들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며, 그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서구화시켰다

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구전 문화적 전통을 차용함으로써 민중들에게 낯설지 않은, 친근한 환상으로 다가오게 만든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이야기를 하듯이 콜롬비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1.2. 역사 시대

이 작품의 2부를 구성하고 있는 4장부터 17장까지는 콜롬비아의 역사적 사실을 아주 분명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즉,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사회변혁운동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일 전쟁(1899-1902)과 바나나 농장의 파업 사건(1928)으로 대별된다.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시대>에는 두 명의 중심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와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이다. 작품의 구조는 정확히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장에서 9장까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가 선거 부정에 항의해 내전을 일으키는 내용 앞에 <신화시대>와 <역사시대>를 연결해주는 4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천일 전쟁과 바나나 농장의 파업 사건을 연결해주는 10장과 11장을 거쳐 12장에서 15장까지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와 그 동료들이 바나나 농장에서 파업을 일으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16, 17장의 고리를 통하여 <역사시대>와 마지막 <문학시대>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즉, 정확하게 대칭적인 구도를 통해서 이 작품의 중심 테마가 콜롬비아의 역사적 사실이며 <신화시대>와 <문학시대>는 그 비극적 역사의 뿌리와 재해석이란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시대>는 외부문물인 행정제도의 도입과 신화적 인물인 멜키아데스의 죽음,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몰락을 통해 시작된다. 조정관이 부임하는 등 행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콘도는 원시문명의 자연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들을 점차 상실하고 근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부엔디아 가문의 집도 새롭게 확장되고 자동 피아노 등이 수입되면서 마콘도는 근대화되며 새로운 진리와 질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과거 신화시대의 진리와 질서를 담당했던 두 인물인 멜키아데스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화시대의 진리를 담당했던 멜키아데스는 마콘도 최초의 사자(死者)가 되어 땅에 묻히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신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신의 형상을 찾는 작업을 중단하고 난(98)” 뒤 광인(狂人)이 되어 나무에 묶인다.

혼돈의 시대에 빛을 전파해주고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우스처럼 그도 나무에 묶인 채 인간 역사의 발전과정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반체제 인물, 비밀스런 신의 권능을 훔친 인물,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벌을 받은 인물, 이러한 것들이 프로메테우스라는 거대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신화소들”⁸⁾이라면 세상의 온갖 미스터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싸움은 그를 프로메테우스적 신화성으로 부각시키며, 그의 죽음을 맞기 위해 저승에서 찾아오는 프루덴시오, 까따우레의 유령 등과 어울린 신성의 상징 노란색 꽃비의 하강은 그의 몰락을 더욱 신화적으로 만든다.

과도기를 거친 마콘도는 본격적으로 <역사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백년의 고독』에서 다뤄지는 콜롬비아의 역사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변혁운동을 다루고 있다. 하나는 이상적인 자유당 시대를 건설하고자 투쟁했던 기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변혁운동을 꾀했던 기간이다. 콜롬비아는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지만 보야카 전투를 승리한 1819년에 이르러서야 사실상의 독립을 획득한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중앙집권을 주장하는 세력과 연방제를 주장하는 세력간에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되며, 이는 1849년 보수당이 창당되면서 더욱 격화된다. 콜롬비아의 역사를 대별해 보면 일반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1810년부터 1862년까지는 보수당 또는 보수 이데올로기가 강성했던 시기이고, 이후 약 20년(1863-1885) 동안의 자유당 낙원기(Utopia libera)와 다시 약 50년(1886-1929) 동안의 기나긴 보수당 재집권기, 그리고 15년(1930-1946) 간의 짧은 자유당 통치기를 통해 <폭력시대(La Violencia)>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보수당과 자유당의 끝없는 이데올로기 갈등이 벌어졌던 100년 간이었던 것이다.

윌리엄스에 의하면 마르케스는 19세기 하반기를 “자유당이 진정한 자유당의 모습을 가졌을 때이며, 그렇기에 콜롬비아의 역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간”⁹⁾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마르케스가 작품 속에서 이상적인 자유당 시대를 복원시키고자 노력했던 부분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의 자살실패로 끝을 맺는 5장에서 9장까지이다. 그는 처음에 보수당 조정관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보수당적인 색채를 띠지만 그들의 선

8) 질베르 뒤랑.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유평근 역, 서울, 살림, 1998, p.35

9) WILLIAMS, Raymond L. *Novela y poder en Colombia 1844-1947*, Bogotá, Tercer Mundo, 1991, p.29.

거부정과 잔혹한 통치에 염증을 느껴 자유당에 가담하고 32차례나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그의 봉기는 모두 실패했고 17명이나 되는 아이들도 산으로 도망친 큰아들 아우렐리아노 아마도르를 제외하고 모두 살해당했다. 이는 현재 산악지방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좌파 게릴라 단체들의 혁명 운동 외에는 콜롬비아에서 시도되었던 수많은 사회변혁운동이 모두 실패했음을 암시한다. 빨간색으로 표상되는 자유당의 정치인들은 처음에 “이혼 제도를 도입하고 서자도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149)” 등 정교 분리·노예 해방·토지 분배·언론의 자유·공공교육의 확충·자유무역·연방제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혁명의 이상이 퇴색되어 각료 몇 명과 혁명을 교환하기(216)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과 그 일행의 “위대한 자유당을 건설하기 위한(205)” 초기의 혁명이상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205)” 부질없는 투쟁으로 전락해 버린다. 이제 보수당과 자유당 사이에 남은 차이는 5시 미사에 참석하느냐 8시 미사에 참석하느냐 정도인 것이다. 그들은 “마콘도에 전원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206)” 아버지 세대와 똑같은 21명의 장정이 자유당 봉기에 참여했지만 원하던 평화는 얻지 못한 채 직업 정치인들과 군부에 농락만 당한 채 32차례의 전쟁에 모두 패하게 된 것이다.

100년 동안 콜롬비아 정치의 수장은 수없이 바뀌었다.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자유당에서 다시 보수당으로, 통치권자는 수없이 교체됐지만 민중들의 수탈당하는 삶은 변화가 없었다. 마콘도에도 민중들의 봉기로 자유당 정권이 성립됐지만 아르카디오의 철권통치는 이전 보수당 정권보다 더욱 잔혹했으며, 호세 아르카디오의 착취는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되었다.

몇 년이 지난 다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다가, 자기 집 마당 언덕에서부터 공동묘지를 포함하여 지평선 끝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형 호세 아르카디오 명의로 되어 있으며, 아르카디오는 마콘도를 통치하던 십일 개월 동안 소작료뿐만 아니라 호세 아르카디오 소유지에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요금까지도 징수해 착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75)

호세 아르카디오는 몰수한 땅의 소유권을 보수파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계속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199)

1954년 발표된 하라미요(Ignacio Gómez Jaramillo)의 「분노와 고통(La furia y el dolor)」이라는 그림엔 이와 같은 민중들의 슬픔이 잘 드러나 있다. 대지에 누워있는 흰 옷 입은 민중의 시체를 뒤에 두고 울면서 고향 땅을 쫓겨가는 노란 옷의 두 여인과 발가벗겨진 어린아이의 모습과 대조되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두 마리 이리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처연하게 만든다. 민중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며 고향 땅에서 쫓아내는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파란색 보수당 권력자요 빨간색 자유당 정치인들인 것이다. 노예해방·토지분배·언론의 자유·공공교육의 확충 등을 통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이상향을 건설하려던 자유당의 이념은 어느새 퇴색한 이데올로기가 되어 그들도 보수당과 똑같이 민중들을 수탈하고 핍박하는 이리떼가 되어버린 것이다. 소설에선 이 과정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자유파 지주들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면 토지 소유권에 관한 재조사를 단념하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카톨릭 교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성직자들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투쟁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고결함을 보존하려면 적자와 서자 사이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만 투쟁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사절단이 제안서를 다 읽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전략적인 수습책이지요. 현재 중요한 것은 전쟁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니까요. 장차 일은 나중에 재고하기로 하고요.> 사절단 가운데 한 사람이 대꾸했다.(250-251)

1902년 10월 24일 네에를란디아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자유당의 봉기는 실패로 끝난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비극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이 소설에 나오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모델이 되었

던 라파엘 우리베(Rafael Uribe Uribe) 장군이 1914년에 암살되었고, 1948년 엔 가이탄(Jorge Eliecer Gaitán)이, 그리고 1966년엔 카밀로 토레스(Camilo Torres)가 뒤를 이었다. 콜롬비아에서 변혁운동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암살된 것이다. 『백년의 고독』 후반부의 역사는 이와 같은 20세기 변혁운동의 전개와 그 좌절을 다룬 이야기이다. 작품에서 다루지는 20세기 콜롬비아의 변혁운동은 사회주의 변혁운동의 특징을 갖는데,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사회당이 창설된 1919년부터 가이탄이 암살된 1948년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콜롬비아에선 1919년 사회당,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20년 공산당이 창설되었으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갈등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28년 씨에나가(Ciénaga)에 있는 미국인 바나나 농장 United Fruit Co.에서 자행된 노동자 학살 사건이라는 윌리엄스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¹⁰⁾

5장에서 9장까지 다루진 변혁운동이 이상적인 자유당 시대의 복원노력과 그 좌절이었다면 12장에서 15장까지는 사회주의 변혁운동과 그 좌절을 다룬 부분이다. 전자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라는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되기에 그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의 자살실패로 끝을 맺는 반면에, 후자는 철저히 사회와 문명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문명인 영화·축음기·전화의 도입으로 혼란을 느끼는 마콘도 주민들에서 시작해서 제국주의자들의 도래와 바나나농장의 건설 그리고 이어지는 파업과 대량학살이 그려진다. 천일 전쟁이 끝난 뒤 콜롬비아는 더욱 보수화되며 제국주의의 침탈 또한 가속화된다. 내전이 시작되던 1899년 Colombia Land Co.와 Boston Fruit Co.의 합병으로 탄생한 United Fruit Co.의 침탈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들은 콜롬비아의 해안지방에 수많은 바나나 농장을 건설하고 민중들을 착취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28년 씨에나가에서 자행된 학살사건으로 이미 사무디오(Cepeda Samudio) 등 많은 작가들이 소설화한 사건이다. “바나나 농장의 착취 시스템은 단순한 착취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 적합하도록 모든 민중들을 규정하고 조건지으며 변형시킨 시스템”¹¹⁾이었다는 양

10) Ibid. p.24.

11) RAMA, Ángel. op.cit. p.64.

“La compañía bananera y su sistema de explotación no es meramente, como acostumbró a decirnos la literatura social, un sistema de explotación pernicioso, sino un sistema que determina y condiciona a una serie de criaturas, y las adecúa y deforma de acuerdo con las características del proceso socioeconómico.”

헬 라마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라이그넬렛(Victor Laignelet)의 그림¹²⁾에서 보여지듯이 삶을 원조하던 바나나가 죽음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이다.

마콘도에 바나나 농장이 건설되면서 마콘도는 죽음의 도시로 변한다. 미녀 레메디오스와 얽힌 네 명의 남자들이 차례차례 죽음을 맞이하고 그녀 또한 하늘로 승천한다. 마그니피코 비스발 대령의 형제와 그의 손자가 실수로 음료수를 쏟았다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며, 부엔디아 대령의 열여섯 명의 아들들이 하나하나 살해당한다. 부엔디아 대령과 아마란타를 거쳐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에 이르기까지 마콘도는 죽음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죽음들은 장차 광장에서 자행될 학살사건의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

19세기의 역사적 중심인물이 부엔디아 대령이라면 20세기의 인물은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이다. 처음엔 보수당과 가까웠다가 자유당 봉기의 중심인물이 된 부엔디아 대령처럼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도 제국주의자들의 심장 노릇을 하다가 노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의 주동자가 된다. 노무자들이 요구한 것은 일요일 휴무 단 하나였고 이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의 첫 번째 봉기처럼 성공을 거둔다. 그의 역사는 철저히 부엔디아 대령의 길을 답습하며 이는 이번의 변혁운동 또한 숙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암시이다. 첫 번째 시위가 성공을 거둔 뒤 그들은 두 번째 시위에 들어간다. “이번에 노무자들의 불만은 노무자 숙소의 비위생성과, 의뢰서비스의 기만성, 그리고 작업조건의 악랄함에 기초하고 있었다(II, 144)”. 하지만 바나나 회사와 마콘도 당국 및 상급 재판소는 노무자들의 요구를 꾸며낸 이야기로 일축하고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을 전개한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되어 군대가 공공질서유지를 담당하지만 애초부터 그들은 쟁의를 중재할 생각이 없었으며 화해를 도모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 결국 “상황이 처절한 내란으로 번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정부는 노무자들에게 마콘도로 집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소집령에 따르면, 도의 민·군 총책임자가 쟁의를 조정하기 위해 돌아오는 금요일에 마콘도에 도착할 거라는 것이었다(II, 148).” 하지만 금요일이 되어도 총책임자는 오지 않고 마콘도의 역 앞 광장은 살육의 도가니로 변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파업에 가담한 노무자들을 <불량배 패거리>로 규정하고, 그들을 사살할 권한을 군대에 부여하고(II, 149)”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제국주의의 착취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12) LAIGNELET, Victor. Zona, 1988

열두 시가 가까워오자, 노무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섞인 삼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역 앞 공터를 넘쳐흘러, 군대가 기관총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가로막고 있는 옆길들로 밀려나왔다.(II, 148)

대위가 사격 개시 명령을 내렸고, 열네 개의 기관총좌들이 동시에 그의 명령에 응답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희극처럼 보였다. 숨가쁘게 울리는 총성이 들리고,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지만, 순간적으로 살아 있는 화석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밀집한 군중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가벼운 반응도, 말소리 하나도, 한숨소리조차도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기관총들에는 폭죽탄들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역 한쪽에서 죽음의 비명소리 하나가 그 마법의 정적을 깨뜨렸다. <아아아악, 어머니!> 지진과 같은 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숨소리, 하늘을 무너뜨리고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포효가 엄청난 폭발력과 더불어 군중 한가운데서 터져 나왔다.(II, 150-151)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삼천 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역 앞에 모였던 사람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가 확실하다는 투로 말했다.(II, 154-155)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음에도 마콘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학살이 자행된 뒤에 나온 정부의 공식 발표 어디에서도 마콘도에 대한 애도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다. “정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마스크림을 총 동원해 전국적으로 수천 번이나 되풀이해 유포한 공식 발표는 결국,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고, 만족한 노무자들은 모두 가족을 찾아 돌아갔으며 바나나회사는 비가 그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믿게(II, 157)” 만드는 것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자들이요 잊혀진 존재들이었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마콘도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긴 살기 좋은 마을(II, 157)”이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1914년엔 라파엘 우리베 장군이, 1948년엔 가이탄이, 그리고 1966년엔 카밀로 토레스 신부가 암살당하는 등 콜롬비아의 변혁운동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계속 죽어갔다.

사실 씨에나가에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인 1928년만 해도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했다. 야당 정치인인 가이탄이 현장을 방문, 조사해서 그 만행을 국회에서 고발했고, 이로 인해 정부는 매우 난처해졌으며, 가이탄은 민중들의 정치지도자로 부상했다. 씨에나가에서 벌어진 학살사건에서 살해당한 사망자 숫자가 13명에 불과함에도 마르케스가 굳이 3,000명으로 과장한 것은 이 사건과 48년 <보고타 사태>의 연관관계를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정확히 20년 뒤에 또 다른 대량학살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 바나나 농장의 학살사건은 단순한 한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20세기 전반기 내내 콜롬비아 전 지역에서 벌어진 사회주의 변혁운동들의 시도와 그 좌절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작품 속에서 마콘도의 상처를 씻어내는 데는 4년 11개월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시간이 흐르면 상처는 아물고 꾀빔 기억들은 순화될 테니까. 그리고 시간은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인과 결과들을 고민해보게 도와줄 테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사건들을 작품화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리고 작품화는 역사의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의 관점과 해석이 필요했다. 18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는 『백년의 고독』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작품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3. 문학의 시대

<신화시대>의 중심인물이 호세 아르카디오이며, <천일전쟁>의 중심인물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고, <바나나 농장>의 중심인물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라면, 마지막 <문학시대>의 당사자는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다. 그는 부엔디아 가문의 딸과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라는 바나나 농장 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엄밀한 의미에서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은 아니다. 그는 조그마한 방에 틀어박혀 델키아데스가 남긴 양피지를 해석

하는데 한평생을 바치는 전형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갖는다. 하지만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양피지 문서를 해석하기 위해선 조그만 방을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 세상과 접촉해야만 한다. 이러한 세상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바로 카탈루냐 출신의 현인이 있는 서점이다.

아우렐리아노는 매일 오후,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친구가 된 네 토론자들과 계속해서 모였는데, 그들 이름은 각각 **알바로**, **헤르만**, **알폰소**, **가브리엘**이었다. 책 속의 현실에 틀어박혀 있던 그와 같은 남자에게, 오후 여섯시에 책가게에서 시작되어 동틀 무렵 사창가에서 끝나고 했던 그 시끌벅적한 모임은 하나의 계시였다.(II, 265)

그런데 서점에서 토론하는 아우렐리아노의 모습은 마르케스의 자전적인 모습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바로 젊은 날 함께 문학토론을 즐겨했던 <바랑끼야 그룹>이 그것으로, 이 그룹엔 약 1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폰소 푸엔마요르(Alfonso Fuenmayor)와 알바로 세페다 사무디오(Álvaro Cepeda Samudio), 헤르만 바르가스(Germán Vargas), 그리고 마르케스 본인이다. 바로 『백년의 고독』 19장에 등장하는 알바로와 헤르만, 알폰소, 가브리엘이 그들인 것이다. 이 그룹의 리더는 스페인 내전 이후에 콜롬비아에 정착했던 카탈란 출신의 라몬 비니예스(Ramón Vinyes)로 소설 속에서도 정확히 카탈란 출신의 현인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연관지어 보면 마콘도는 어느새 바랑끼야로 변화되며, 아우렐리아노의 역사에 대한 해석은 마르케스의 개인적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18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중심인물인 아우렐리아노가 수행하는 행위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멜키아데스에 의해 남겨진 양피지 문서를 해석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의 이모인 아마란타 우르술라와의 사랑이다. 양피지 문서에 대한 해석 행위는 『백년의 고독』에 대한 해석과 똑같은 행위이며,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해석은 가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인해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마콘도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극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돌리아 데 드로스스의 생각은 다르다. 그녀에 의하면 『백년의 고독』을 이해하기 위해선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상징 코드인 ‘근친상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작품 속에선 항상 '사랑에 대한 욕망'과 '근친상간'에 대한 공포가 함께 드러나 있는데, 그와 연관된 상징이 바로 물고기와 이구아나이다. 물고기는 부엔디아 대령이 끊임없이 작업하는 수동적인 에로틱 행위이며, 이구아나는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근친상간의 징표이다.¹³⁾ 즉, 물고기와 이구아나는 근친상간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만들어내는 신화소들이었다.

우르술라가 죽고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마콘도에 돌아오면서 근친상간의 신화는 완성된다.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사랑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II, 288)"가 되고, 그러한 완성된 사랑의 결실로 돼지꼬리를 달고 있는 아우렐리아노를 출산한다.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난 아이는 새로운 신화의 시작이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인 것이다. 오토 랭(Otto Rank)에 의하면¹⁴⁾ 근친상간의 신화는 창조적 충동의 신화이다.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 충동이 있었기에 인류는 생존할 수 있었고 항상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 부엔디아 대령이 서른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삼천 명의 노동자들이 학살당한 것도, 그래서 결국 백 년 동안 콜롬비아의 역사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도 모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마르케스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몸집이 크다는 점에서는 부엔디아 가문의 자손이며, 호세 아르카디오처럼 튼튼한 데다 고집이 세고, 아우렐리아노의 똑바로 뜬, 통찰력 있는 눈을 지니고 있으며, 한 세기만에 사랑에 의해 잉태되었던 유일한 아이였기 때문에 가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해로운 악습과 숙명적인 고독으로부터 가문을 정화시키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아이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13) DE DROSS, Tuliá A. "El mito y el incesto en *Cien Años de Soledad*", Rev. ECO, Junio de 1969, pp.179-187.

14) *ibid*, p.187

"La función del mito no es solamente la perpetuación de la especie sino como diría Otto Rank, para quien el incesto es un símbolo del impulso creador, por él se asegura la supervivencia espiritual..."

<완전히 식인종을 닮았네요. 이름은 로드리고라 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오. 아우렐리아노라 부를 건데, 그러면 서른 두 번의 전투를 이길 거요> 남편이 반대하고 나섰다.(II, 298-299)

백년 만에 사랑에 의해 태어났기에 그는 가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해로운 악습과 숙명적인 고독으로부터 가문을 정화시키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리 부엔디아 가문의 숙명적인 이름인 아우렐리아노를 다시 사용할 지라도 그는 서른 두 번의 전투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는(II, 288)” 것이다.

II.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신화시대>, <역사시대>, <문학시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마르케스를 비롯한 봄세대 작가들의 가장 큰 공헌은 그들이 그들의 신화를 재발견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신화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잉카문명의 변방지역이요 정복기 스페인의 부왕청이 있었던 콜롬비아에서 그들의 신화를 재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마르케스는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냈다. 신화소는 서구의 신화들에서 차용해 오는 대신 그것들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구술 문화적 전통을 사용함으로써 그들 나름의 정체성을 비교적 잘 표현해 낸 것이다. 어차피 신화란 제한된 수의 카드를 가지고 하는 놀이가 아니던가? 질베르 뒤랑에 의하면 신화는 항상 재귀하는 것이다. 새로운 신화가 있다고 믿는 것은 피상적인 환상일 뿐이다¹⁵⁾. 서구의 편협한 합리주의 사상과 감수성의 지평에 신화를 되돌려 놓음으로써 고갈 위기에 빠진 서구문학에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또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방법에서도 직접적인 고발의 형태를 취하

15) 질베르 뒤랑. op.cit. p.63

기보다는 보편적인 상징과 과장, 신화들을 차용해서 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 등을 천착함으로써, 콜롬비아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합리주의 시대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생자(生者)와 사자(死者)의 공존 등과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에 섞어 넣음으로써 리얼리즘 문학과 환상문학의 경계를 무너뜨린 점 또한 주목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문학시대>엔 자신의 경험을 작품 속에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시각과 의도를 분명히 밝히려 한 점 또한 주목된다. 돼지꼬리 달린 아이의 탄생을 마콘도의 숙명적 멸망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신화, 새로운 문명의 탄생에 대한 작가의 갈망으로 이해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가르시아 마르케스, 가브리엘. 『백년의 고독 I, II』, 조구호 역, 민음사, 2000.
뒤랑, 질베르.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유평근 역, 살림, 1998.
모레티, 프랑코. 『근대의 서사시』, 조형준 역, 새물결, 2001.
박철 외, 『노벨문학상과 한국문학』, 월인, 2001.
ZAMORA, Lois Parkinson & FARIS, Wendy B. 『마술적 사실주의』, 우석
균 외 공역, 한국문화사, 2000.
ANTONIO ARANGO, Manuel. *Gabriel García Márquez y la novela de la
violencia en Colombia*, México, F.C.E. 1985.
INÉS MENA, Lucila. *La función de la historia en <Cien años de soledad>*,
España, P & J, 1979.
RAMA, Ángel. *La narrativa de G. G. Márquez: Edificación de un arte
nacional y popular*, Colombia, Colcultura, 1991.
WILLIAMS, Raymond L. *Novela y poder en Colombia 1844-1987*,
Colombia, Tercer Mundo, 1991.
DE DROSS, Tulia A. “El mito y el incesto en <Cien años de soledad>”,
Rev. *ECO*, Colombia, junio de 1969.
HERNÁNDEZ, Manuel. “Los muertos. Un abordaje a Cien años de
soledad”. Rev. *ECO*, Colombia, mayo de 1969.

JITRIK, Noe. "La perifrástica productiva en <Cien años de soledad>", Rev
ECO, Colombia, oct. de 1974.

RUFFINELLI, Jorge. "G.G. Márquez y el grupo de Barranquilla", Rev
ECO, Colombia, oct. de 1974.